

순천 시민 삶의 질 개선...책임 시정 노력

순천만국가정원 등 생태·문화 계승...공공자원시설 점검 산업·교통·관광·의료·교육 등 동부권 성장 전략 제시 '최소 사회 안전망' 소상공인 최저 소득보장제 정책 추진

손훈모 순천시장

-새롭게 순천시정을 맡게 된 소감은.
△새롭게 순천을 맡게 돼 기쁘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순천시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자리가 아니라, 순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라는 엄중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에서 만났던 시민들의 걱정, 기대, 때로는 이픈 말씀까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
이제부터는 저를 지지하신 분도, 지지하지 않으신 분도 모두 함께 가야 할 순천시민이다.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시민의 삶을 가장 앞에 두는 시정을 펼치겠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키우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지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어떤 것인가.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를 감히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순천이 달라져야 한다"는 바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민생의 어려움, 지역경제 침체, 청년 일자리 부족, 갈등과 불통에 대한 걱정을 말씀해 주셨다. 저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듣고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택을 개인적 지지로 생각하지 않겠

다. 순천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 시민을 하나로 모으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곁에서 일하겠다.
-민선 8기의 냉철한 평가를 통한 정책의 승계나 과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선 8기 시정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천만국가정원, 생태·문화·관광 기반처럼 순천의 자산을 키워온 성과는 인정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시민 동의가 부족했거나, 재정 부담이 크거나, 생활 불편과 갈등을 키운 정책은 냉철하게 다시 볼 것이다.
기준은 하나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순천의 미래에 필요한가. 큰 재정적 부담에 비해 효과나 필요성 등에서 타당한가이다. 좋은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바로잡겠다. 민선 9기는 과거와 싸우는 시정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게 만드는 실용과 책임의 시정으로 가겠다.
-민선 9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였는데, 어떻게 시정을 이끌 생각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순천에 위기가자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행정구역이 커진다고 해서 순천의 현안이 저절로



손훈모 순천시장이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시민의 삶을 가장 앞에 두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순천이 분명한 전략과 목소리를 갖지 못하면 예산과 정책의 중심에서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민선 9기는 더 치밀하고 더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우선 순천을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세우겠다. 여수·광양·고흥 등 인근 도시와 경쟁할 것 아니냐. 동부권 시군과 상생협력체 등을 만들어 산업·교통·관광·의료·교육을 함께 묶어 동부권 공동 성장 전략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서 미래산업 예산과 국가사업이 광주·서부권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순천의 우주항공·방산, 관광, 의료 인프라

역경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광객은 오지만 골목상권과 청년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생태도시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생태도시 위에 경제도시를 더하자는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생태자원은 관광·문화산업으로 키우고, 우주항공·방산·AI 같은 미래산업을 육성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순천은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를 넘어,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생태를 지키면서 경제를 키우는 것, 그것이 제가 그리는 민선 9기 순천의 방향이다.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소상공인 최저 소득보장제다. 선거 과정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께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골목상권도, 일자리도, 순천의 민생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베풀기 전에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다.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분들이 페어로 내몰리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리자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와 시너지를 통한 지역의 도약이 필요한데,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과 순천의 미래전략을 정확히 맞물리게 하는 것이 중요



손훈모 시장이 최근 신단 근로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손훈모 순천시장이 아랫장 특산물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 당선인이 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해피니스CC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전국 아마추어 대회

대회 일정
 예선 1차 2026.06.29(월) 7:00 사전 - 대회 완료
 예선 2차 2026.07.06(월) 7:00 사전 - 접수 마감(대기접수 가능)
 예선 3차 2026.07.13(월) 7:00 사전 - 접수 마감(대기접수 가능)
 예선 4차 2026.07.20(월) 7:00 사전 - 접수 가능
 예선 5차 2026.07.27(월) 7:00 사전 - 접수 가능

본선 2026.08.03(월) 7:00 사전
 참가자 : 예선전 통과 선수 252명(본선 통과 참가자 중 미참가자 발생시 예선참가자 대상으로 추가 선발 할 수 있음)

참가접수 해피니스CC 홈페이지

△그린피 및 참가비 홈페이지 아마추어 대회 공지사항 참고
 △매 회차별 총인원 상단 최대 1억원(당일 총인원 중백 발행 시,사상금은 발행 인원수에 따라 1/N로 분할 지급)

회원모집 안내

(단위:백만원)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 특 전
VVIP (A형)	700	6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그린피50% 할인, 연25회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지정회원예 그린피 면제 위임시 동반3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비회원예 그린피 면제 위임시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4인 기준) (단, 그린피 면제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1회만 사용가능)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 /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VVIP (B형)			- 회원 없음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월 5회 소멸성, 1일-1회 1팀4인 기준)
VIP 정회원	500	9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그린피50% 할인, 연20회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 /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하트 정회원	320	5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해피 정회원	180~160 (할인 20)	3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36회 사용/월 3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해피니스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 061) 330-5000 | 예약전화 ☎ 061) 330-5001~4